

# 속 시원한 용담댐 피해조사 촉구 전춘성 진안군수, 발품행정 나서

### 무주군 부남면 용담댐 피해 주민들, 수해피해 용역사에 강력 요청

무주군 부남면 용담댐 피해 주민들은 16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면밀한 조사, 방류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조사 활동을 펼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오후 용담댐 수해피해 조사용역에 참여한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건설연구원, (주)이산 관계자들이 조사에 앞서 용담댐 피해주민들의 의견 수렴차 부남면 체육공원을 찾은 자리에서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어떠한 명분과 논리도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피해 주민들은 "용역기관에서는 과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시 집중적으로 방류한 사례가 있는 지 사례가 있다면 왜 방류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날 용담댐 수해피해 현장방문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박희용 무주군 용담댐 피해대책위원장, 박희서 용담댐 피해대책위원장(4개 군), 용역사 관계자 등이



16일 용담댐 수해피해 현장방문에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박희용 무주군 용담댐 피해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무주 피해주민 50여명, 손재권 총괄피해조사위원장, 박희서 용담댐 피해대책위원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했다. 회의의 진행은 용역사 수해원인조사 설명, 피해주민과 용역사 질의응답, 부남체육공원과 무주 요대 수해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올해내에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용역사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 여러분들도 부디 힘내시고 또 희망을 버리지 말고서 모두 합심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나

가자"고 피해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15일 오전 주간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황인홍 군수는 17일까지 마을별 담당 부서 지정과 함께 전담마을 책임공무원을 운영하고 다음달 12일까지 담당마을 피해조사와 자료를 확보해 피해조사 자료로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용담댐 수해피해와 관련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6개월) 용담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발품행정 나서

###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도26호선 '사고다발' 구간인 소태정 고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 명절 후 첫날부터 바쁜 일정에 나섰다.

16일 전 군수를 비롯해 건설교통과장 등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 시설개량(터널화)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필요성을 기재부 관계자에게 적극 설명했다.

국도26호선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은 영호남을 잇는 동서 주요 노선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해 이용률이 높은 도로이다.

하지만 평면, 종단선형 모두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일명 '사고다발 도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도로시설 개량(터널화)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14개 보험사 교통사고처리현황(2009~2013년) 소태정 구간 총 사고건수는 3,620건(905건/년)으로 차 단속사고, 차와 차 사고로 사망자 발생

고 26건 등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교통사고 발생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 선형개량을 위한 설계를 실시했고, 선형개량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고, 터널을 구축 등 도로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684억원, 사업당 총연장 L=3.0km(하행 2차로 터널 L=1,587m) 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3월 정책심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수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도로시설개량(터널화)사업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군의 목표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은 물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개량(터널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담은 책자 발간

장수군은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세제·부동산, 문화·체육, 농·축산·식품, 환경·복지·안전, 건설·교통·경제·산업, 보건·복지·행정 등 6개 분야 30개 제도 및 시책 등이다.

책자는 장수군에서 새로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장수군은 귀향청년 정착지원,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귀향청년 정착지원금 지원금,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이 실거주 목적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돈 버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와 함께 브랜드육 생산,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장수한우 브랜드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 여성청소년에게 확대 지원하며 임신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대상도 기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서 5.18민주유공자, 공상, 순직공무원이 새로 추가돼 신청이후 자격 적합 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 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면 월 3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이차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지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기능 향상 및 정부의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 정책으로 매년 군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펼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검진 위한 송영차량 운행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2021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협약 병원에 매주 목요일 송영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올해 신규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 송영차량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치매조기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치매진단검사 1·2단계(신경심리검사·치매임상평가) 및 치매검별검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영차량은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까지 운행하며 센터 직원들이 모든 일정을 함께 하여 대상자의 안전한 치매 조기 검진을 돕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치매안심센터(063-320-86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등을 위해 제322회 임시회를 열었다.

김용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2021년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통해 군정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문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유기홍 의원을, 위원에는 김병진, 김종철, 유주상, 이길재 이상 4명을 선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용담댐 방류 피해 관련 수해원인 현장조사

### 용역회사, 용역 진행 방향 설명·홍수피해 규모·시설물 피해·침수흔적 등 조사

진안군은 16일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 피해와 관련하여 용역회사와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진안군 관계자와 용담·대청댐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위원장인 손재권 교수 및 진안군, 옥천군, 금산군 피해주민 대표, 진안군 피해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용담면 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용역회사에서는 먼저 진안군 관계자

와 피해주민들에게 수해원인 조사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수해 당시 상황과 의견을 듣고 직접 피해현장에 방문하여 홍수 피해 규모, 시설물 피해, 침수흔적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용역회사 관계자는 "현장조사로 얻은 자료들은 수해원인 분석에 이용하게 된다"며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는 진안군을 시

작으로 23일까지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청주시, 옥천군 순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6개 시·군에서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제도적 장치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고 축산 냄새저감 실증

모델 구축 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농축

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전북대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균제를 활용한 축산냄새, 분뇨처리 문제해결, 가축 생산성 향상 등 축산 현안해결 및 축산 냄새저감 실증모델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